

폭우에 '싱거워진' 바닷물... 200억원대 강진 전복 폐사

마랑항서 1km 떨어진 양식장까지 민물 덮치며 염도 '뚝' 32곳 20ha 피해... "올 추석 출하할 것 없다" 어민들 시름

사흘 간 50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강진 바다에서 전복들이 잇따라 폐사했다. 육지로부터 밀려 온 민물이 해안선에서 1km 떨어진 전복 양식장을 덮치면서 양식장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7일 강진군청과 어민들에 따르면 강진군 마랑면 앞바다의 40ha 면적의 전복 양식장(약 400억원 상당)의 전복 가운데 절반 가량이 폐사했다. 전복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닷물 염도가 30~32ppt는 되어 하지만, 이번 장마로 염도가 15ppt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장, 강진군 32개 전복양식 어가가 전부 피해를 입었고, 40ha 가운데 20ha 면적의 전복이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추산액은 200억원 규모다.

수년째 키워온 전복이 하루 아침에 죽어나가면서 어민들은 시름에 빠졌다. 마랑면에서 1.5ha 규모의 전복양식장을 운영하는 김양아(47)씨는 "비가 쏟아지는데 인근 댐과 담수호에서도 방류가 시작돼 전복양식장까지 민물이 유입되면서 전복이 민물이 노출됐다"며 "치패는 물론 2년 6개월 이상 키워온 성패까지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 폐사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 전복가두리양식협회 관계자는 "민물이 바다로 계속 유입되고 있어 전복 피해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당장 올 추석을 출하할 전복이 전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남수산과학원 강진지소 관계자 등은 이날 바다

염도를 측정할 결과, 김씨의 전복양식장 등 마랑면 일원 바닷물의 염도는 5ppt 수준을 기록했다. 강진군청 관계자는 "마랑 앞바다는 Y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사흘동안 강진군에 476mm, 대구면 600mm, 마랑면 500mm의 비가 내렸고 건너편의 도암면과 신진면에도 5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육지의 민물이 바다로 유입됐다"며 "여기다가 사내간척지 만덕호도 방류를 시작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이 민물 유입으로 전복이 폐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이날 현장을 찾은 행정당국과 정당 관계자들은 피해 어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어민 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포함해 재난지역 선포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kwangju.co.kr



7일 오전 강진군 마랑면 전복양식장에서 폭우로 민물이 유입돼 피해를 입은 전복양식 어가들이 행정당국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늘린다

광주시 이달부터 '외래' 대상자도 소득 상관없이 '발병 초기'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확대

광주시는 정신질환자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올해 초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의 경우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본인일부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 7월부터는 '외래치료 지원비'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외래 본인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까지에서 7월부터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상 20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대상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등이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가 주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급절차와 지원 내용은 주주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곡성 출신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내정

곡성 출신인 최관호(사진)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서울경찰청으로 내정됐다. 정부는 7일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포함한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 이철구 충남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 이규문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은 부산경찰청장, 송민현 경찰청 차장은 인천경찰청장으로 각각 내정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계급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으로 경찰 내 7명 밖에 없는 최고위직이다. 신임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광주 송일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후보생(제 39기)으로 경찰에 들어와 광주경찰청 경비 교통과장, 무안경찰서장 등을 지냈고 경무관(2015년)을 거쳐 치안감(2018년)으로 승진해 전남경찰청장, 광주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달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따라 경찰청장은 시도 자치경찰위와 협의 과정을 거쳐 시도 경찰청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스트,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 선정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재원이 주관하는 2021년 대학 ICT연구센터(ITRC) 육성지원사업의 주권대학으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ICT유망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ICT혁신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ICT육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사물인터넷·블록체인·컴퓨팅시스템·디지털콘텐츠·차세대통신·이동통신·차세대통신/네트워크·인공지능 등 반도체·양자정보통신 등 총 8개 분야별 과제를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지스트는 블록체인 기술 분야 과제 수행을 위해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와 함께 2028년 12월까지 최대 8년 간 '블록체인 지능 융합센터'를 설립하고,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필요한 운영비용으로 최대 8년 간 국비 60억원, 광주광역시 시비 2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최종 목표는 지능적 자원관리와 효율성과 탄력성이 제고된 영지식 센싱, 암호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융합 기술 개발 및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별 보며 과학 배워요 광주 북구, 여름방학 별밤캠프

광주시 북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국립광주과학관과 함께 '2021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별밤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천문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캠프는 오는 24일과 다음달 21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국내 최고 수준의 천체관측 장비를

보유한 국립광주과학관 별빛전문대에서 밤하늘의 별을 직접 관측하는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천체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가족 티셔츠 만들기, 달 탐사 코딩, 우주 속 홀로그램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별밤캠프 참가신청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당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기(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돌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